

한국어 복합어 감탄사의 결합 유형과 품사 설정 양상 연구*

김 문 기**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에 실려 있는 복합어 감탄사 중 단어형 복합어 감탄사를 대상으로, 의미의 측면에서 그 내부 구조에 따른 유형을 설정해 보려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들이 감탄사라는 품사로 설정되는 근거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표준』의 표제어에는 그 조어(법) 정보가 ‘-’(붙임표)로 표시된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일러두기’ 등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복합어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 역시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표준』에서는 복합어 감탄사의 품사 설정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데, 이는 학교 문법의 조어법에 근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교 문법에서도 복합어 감탄사의 품사 설정 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즉, 복합어 감탄사의 결합 양상과 품사 설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¹⁾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2065458)

** 동아대학교

1) 단어의 내부 구조를 살필 때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그 구성 요소가 어떠한 문법 단위인가이다. 하지만 복합어 감탄사의 내부 구조와 관련된 문법 단위에는 분명하지 않은 것이 많다. 따라서 이는 복합어 감탄사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려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표준』의 복합어 감탄사 중 그 구성 요소로 감탄사가 포함된 것만을 대상으로, 그 결합 양상에 따른 유형과 품사 결정 양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앞선 연구의 검토

한국어의 감탄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 문법 범주적 특징, 의미 기능을 바탕으로 한 유형 분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감탄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교 문법을 비롯한 여러 논의에서 제시되었다. 그리고 그 유형에 대해서는 최호철(2000), 전영옥(2012) 등에서 논의된 바 있다.(김문기 2017:5~8 참조.)

한편, 한국어 감탄사의 내부 구조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다룬 논의로는 양양(2011)과 두청(2016) 등이 전부를 할 수 있다. 양양(2011)에서는 『표준』의 감탄사를, 두청(2016)에서는 『연세한국어사전』의 감탄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양양(2011:22~48)에서의 감탄사 유형 분류는 다음과 같다.

- (1) ㄱ. 단일어 감탄사: 1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 5음절 감탄사
- ㄴ. 복합어 감탄사
 - 합성어 감탄사: 통사적 합성 감탄사, 비통사적 합성 감탄사, 반복 합성 감탄사
 - 파생어 감탄사: 영변화 파생 감탄사, 접미사 결합 파생 감탄사

두청(2016:23~56)에서의 감탄사 유형 분류는 다음과 같다.

- (2) ㄱ. 단일어 감탄사: 1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 감탄사
- ㄴ. 복합어 감탄사

- 파생어 감탄사: 접사에 의한 것(접미파생 감탄사), 접사에 의하지 않은 것(내적 파생 감탄사, 영변화 파생 감탄사)
- 합성어 감탄사: 통사적 합성 감탄사, 비통사적 합성 감탄사, 반복 합성 감탄사

위의 두 논의는 대상 자료가 다를 뿐, 분석의 틀이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이 두 논의에서는 감탄사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문법 범주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유형 분류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최형용(2018:31~80)에서는 형태소, 단어, 어근, 접사, 합성어, 파생어 등과 관련하여 단어 형성의 측면에서 의미 관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복합어 감탄사의 유형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도 있었다.

이처럼 그동안 복합어 감탄사의 내부 구조에 바탕을 두고 그 구성 요소들의 의미적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다룬 논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복합어 감탄사의 품사 결정 양상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복합어 감탄사의 각 구성 요소의 의미에서 나타나는 관련성으로 그 의미적 관계를 판단하려 한다.²⁾ 이때 복합어 감탄사 전체의 품사와 그 구성 요소들의 품사도 함께 고려하여 품사 결정 요소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3. 복합어 감탄사의 내부 구조와 품사 결정 요소

『표준』에 실린 감탄사 중 복합어 감탄사는 모두 189개로, 고유어

2)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한 품사 결정 요소의 기준을 삼기에는 모자람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복합어 전반에 대한 구성 양상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51개, 한자어 36개, 외래어(영어) 2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크게 ‘단어형’과 ‘문장형’으로 나눌 수 있다.³⁾ 이때 ‘문장형’은 주로 어미가 개입되거나 문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감탄사를 말하며, 그 외의 것은 ‘단어형’으로 설정하였다.

- (3) ㄱ. 단어형(118개): 가동-가동, 가설랑-은, 개치네-췌, 거-참, 걸음-마, 걸음마-찍찍, 곤두-곤두, 곤지-곤지, 굽-아, 그저-참, 그것-참, 그래-그래, 까짓-것,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달강-달강2, 등개-등개, 도리-도리, 도-시위(侍衛), 드레-드레2, 따로-따로2, 따로따로-따따로, 만-만세(萬萬歲), 맘-소사, 무에리-수에, 뵈-시위(侍衛), 부라-부라, 빙모(聘母)-님, 새-아가, 섬마-섬마, 세상(世上)-에, 시장-시장, 시재-시재(時哉時哉), 시호-시호(時乎時乎), 췌-췌, 아나-나비아, 아니-요, 아니-참, 아-아1, 아이고-나, 아이고-머니, 아이고머니-나, 아이고-아이고, 아이스-케키(←ice cake), 아이-참, 안가-시위(安駕侍衛), 알나리-깎나리, 애고머니-나, 애고-애고, 어기야-디아, 어머-머, 어야-디아, 어-어, 어이구-머니, 어이구머니-나, 어이-어이, 어허-둥둥, 어허라-달구야, 어허야-어허, 어화-둥둥, 열싸-둥둥, 열씨구나-절씨구나, 열씨구-절씨구, 예구머니-나, 예구-예구, 예그-나, 예꾸-나, 예야-디아, 에이-췌, 엇-단쇠, 영치기-영차, 예-시위(詣侍衛), 예-예1, 예-이2, 오냐-오냐, 오라-질, 오래-오래2, 오호-애재(嗚呼哀哉), 오호-통재(嗚呼痛哉), 와-와, 왕배야-덕배야, 요-개1, 우라-질, 우아-우아, 우어-우어, 우여-우여, 우-우2, 우향-우(右向右), 워-워, 육시(戮屍)-랄,⁴⁾ 이-개1, 이-괴, 이러-쩌쩌, 이리-연초, 이리-위, 자장-자장, 저-거시기, 저리-위, 저멀리-직직,

3) 감탄사는 화용론적 성격이 강하여 대부분 ‘소형문(minor sentence)’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내부 구조에서 보이는 구성 요소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분류도 가능하다고 본다.

4) 이는 본래 통사적 구성(‘육시를 할’)이었던 것이 한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

좌향-좌(左向左), 좌암-좌암, 좌좌-반반, 귀엄-귀엄, 질라래비-윙윙, 짹짜공-짹짜공, 쫓-쫓, 참-말, 천만(千萬)-에, 천지(天地)-에, 천하(天下)-에, 하-하2, 허-허2, 허허-둥둥, 허허-이루후어험-험, 호-호3, 후여-후여, 흠-흠2, 흥-흥2

- ㄴ. 문장형(71개): 거-보시오, 거-봐, 거-봐라, 걸어-총(銃), 검사-총(檢査銃), 글썸-다, 글썸-올시다, 글썸-요, 깜짝-이야, 꽃아-칼, 다-이름까, 뒤로-돌아, 뒤로돌아-가, 뛰어-가, 레디-고(ready go), 무릎-썉, 무릎-앉아, 바른걸음으로-가, 반(半)걸음으로-가, 받들어-총(銃), 배라-먹을, 서서-썉, 세워-총(銃), 심-봤다, 아니-야, 앉아-썉, 앞에-총(銃), 앞으로-가, 앞으로-나란히, 어깨-총(銃), 어마-뜨거라, 옆드려-뻘쳐, 옆드려-썉, 예-뜨거라, 여-보1, 여-보게, 여보게나, 여-보세요, 여-보쇼, 여-보시게, 여-보시오, 여-보십시오, 여-보아라, 여-봅시오, 여-봐, 여-봐라, 여봐-요, 열중(列中)-쉬어, 옳다-구나, 우(右)로-나란히, 우(右)로-봐, 우(右)로-어깨총(銃), 우향(右向)앞으로-가, 웬-걸, 이-보1, 이-보게, 이-보시오, 이-보우, 이-봐, 일어-서, 저-보게, 저-보세요, 저-보시오, 저-보십시오, 제자리에-서, 좌(左)로어깨-총(銃), 좌향(左向)앞으로-가, 지어-총(銃), 편(便)히-쉬어, 편(便)히-앉아, 희(噫)-라

이 글에서는 (37) 가운데, ‘감탄사가 개입된 것’(54개)에 한정하여 살펴보려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탄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결합 방식이 상당히 다양하여 복합어 감탄사 전체의 유형을 체계적이고 한정적으로 다루기가 곤란했기 때문이다.⁵⁾ 둘째,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복합어 감탄사 전체의 내부 구조를 그 구성 요소의 의미적 관련성으로 한꺼번에 설명하기가 까다로워 단계적인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셋째, 복합어 감탄사(118개) 모두를 구체적으로 살펴

5) 이는 특정한 이론을 바탕으로 복합어 감탄사의 유형을 나눈 것이 아니라, 『표준』의 복합어 감탄사의 내부 구조를 있는 그대로 살폈기 때문이다.

보기에는 지면의 한계라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복합어 감탄사는 그 구성 요소의 문법 범주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즉, ‘순수 감탄사가 결합된 유형’, ‘품사 통용의 감탄사가 포함된 유형’, ‘문법 범주가 불분명한 구성 요소가 포함된 유형’이 그것이다.⁶⁾ 그리고 그 하위 부류로 선행 요소와(또는) 후행 요소가 감탄사인 것, 선행 요소와(또는) 후행 요소가 품사 통용의 감탄사인 것, 선행 요소와(또는) 후행 요소가 문법 범주가 불분명한 것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선·후행 요소의 결합 구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3.1. 순수 감탄사가 결합된 유형

3.1.1. 선·후행 요소가 모두 감탄사인 것

여기에는 두 감탄사가 결합하여, ① 감탄사로 된 것과 ② 부사·감탄사 통용으로 된 것이 있다.

1) 감탄사 + 감탄사 = 감탄사

번호	표제어	품사	선행 품사	후행 품사
1	그래-그래	감탄사	감탄사(그래1)	감탄사(그래1)
2	췌-췌(=췌1)	감탄사	감탄사(췌1)	감탄사(췌1)
3	아-아1	감탄사	감탄사(아2)	감탄사(아2)
4	아이고-아이고	감탄사	감탄사(아이고)	감탄사(아이고)
5	애고-애고	감탄사	감탄사(애고1)	감탄사(애고1)
6	어머-머	감탄사	감탄사(어머)	감탄사(‘어머’의 일부)
7	어-어	감탄사	감탄사(어2)	감탄사(어2)

6) 이때 ‘순수 감탄사’란 감탄사로만 쓰이는 감탄사를, ‘품사 통용의 감탄사’는 감탄사 뿐만 아니라 다른 품사로도 쓰이는 감탄사를, ‘문법 범주가 불분명한 구성 요소’는 단어나 어근 등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하게 지니지 않는 구성 요소를 나타낸다.

8	어허-둥둥	감탄사	감탄사(어허)	감탄사(둥둥3)
9	어화-둥둥	감탄사	감탄사(어화1)	감탄사(둥둥3)
10	에구-에구	감탄사	감탄사 (‘에구’「1」만 유사)	감탄사 (‘에구’「1」만 유사)
11	에이-췌	감탄사	감탄사(에이1)	감탄사(췌1)
12	영치기-영차	감탄사	감탄사(영치기)	감탄사(영차1)
13	오호-애재 (嗚呼哀哉)	감탄사	감탄사(오호1)	감탄사(애재)
14	우아-우아	감탄사	감탄사(우아1)	감탄사(우아1)
15	우어-우어	감탄사	감탄사(우어1)	감탄사(우어1)
16	우여-우여	감탄사	감탄사(우여1)	감탄사(우여1)
17	위-위	감탄사	감탄사(위2)	감탄사(위2)
18	이러-쩌쩌	감탄사	감탄사(이러1)	감탄사(쩌쩌=쩌2)
19	험-험	감탄사	감탄사(험3)	감탄사(험3)
20	호-호3	감탄사	감탄사(호2)	감탄사(호2)
21	후여-후여	감탄사	감탄사(후여)	감탄사(후여)
22	흙-흙2	감탄사	감탄사(흙2)	감탄사(흙2)
23	헉-헉2	감탄사	감탄사(헉2)	감탄사(헉2)

이 유형은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모두 감탄사이므로, 선·후행 요소 중 어느 하나 또는 양쪽 모두가 전체 구성의 품사를 결정한다 하겠다. 그리고 ‘아이-참, 영치기-영차, 오호-애재, 이러-쩌쩌, 저-거시기’를 제외하면 모두 동일 형태가 선·후행 요소로 결합된다.

이들 감탄사의 뜻풀이에 바탕을 둔 의미적 양상은 다음과 같다.

- (4) ㄱ. 선행 요소를 거듭 내는 소리 : 어머-머, 우아-우아, 우어-우어, 우여-우여, 위-위, 험-험, 호-호3, 후여-후여, 흙-흙2, 헉-헉2
- ㄴ. 강조 : 그래-그래, 아이고-아이고, 애고-애고
- ㄷ. 구성 요소의 합과 비슷한 의미 : 어화-둥둥, 영치기-영차, 오호-애재⁷⁾, 이러-쩌쩌
- ㄹ. 구성 요소들과 다른 의미 : 아-아1, 어-어, 에이-췌

7) 주로 ‘오호애재라’의 꼴로 쓰인다고 제시되어 있다. 이는 곧 ‘-이-+다’가 결합되어 야 하나의 문장처럼 쓰인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 ㄹ. 단일어 감탄사와 동일한 의미 : 쉼-쉼
- ㅂ. 단일어 감탄사와 부분적으로 비슷한 의미 : 예구-예구
- ㅅ. 구성 요소 중 하나의 의미가 달라진 의미 : 어허-둥둥

(4ㄱ)처럼 선행 요소 전체가 중첩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어머-머’처럼 그 일부만 중첩되는 경우도 있다.

(4ㄴ)은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4ㄱ)과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 즉, 형태적 중첩이 보통 ‘강조’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4ㄱ)의 ‘거듭’이라는 의미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4ㄴ)에서 ‘그래-그래’만 뜻풀이에 강조의 의미가 명시되어 있다.

- (5) ㄱ. 아이고-아이고(감) 「1」 아주 언짢거나 놀라울 때 내는 소리.
「2」 아주 반갑거나 좋을 때 내는 소리. 「3」 잇따라 우는 소리. 특히 상제가 잇따라 곡하는 소리를 이른다.
- ㄴ. 아이고(감) 「1」 아프거나 힘들거나 놀라거나 원통하거나 기막힐 때 내는 소리. 「2」 반갑거나 좋을 때 내는 소리.
「3」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탄식할 때 내는 소리. 「4」 우는 소리. 특히 상중(喪中)에 곡하는 소리를 이른다.

(5ㄱ)과 (5ㄴ)의 뜻풀이를 비교해 보면, (5ㄱ)의 「1」과 「2」에는 ‘아주’가, (5ㄱ)의 「3」에는 ‘잇따라’가 추가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는 강조의 의미로서 (4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후자는 (4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⁸⁾

(4ㄷ)은 구성 요소의 의미와 전체 구성의 의미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 하나가 의미적으로 더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

- (6) ㄱ. 영치기-영차(감) 힘든 일을 함께 하거나 운동 경기를 할 때,
힘을 모으거나 호흡을 맞추기 위하여 잇따라 내는 소리.

8) ‘아이고-아이고’의 준말인 ‘애고-애고’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ㄴ. 영치기(감) 여러 사람이 함께 무거운 물건을 메고 갈 때,
힘을 맞추기 위하여 내는 소리.

ㄷ. 영차1(감)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서 기운을 돋우려고 함
께 내는 소리.

(7) ㄱ. 이러-쩌쩌(감) 소나 말을 빨리 가도록 몰 때 내는 소리.

ㄴ. 이러1(감) 소나 말을 몰거나 끌어당길 때 내는 소리.

ㄷ. 찌쩌2(감) ‘쩌2’를 거듭하여 내는 소리.

ㄹ. 찌2(감) 말이나 소 따위를 왼쪽으로 몰 때 내는 소리.

(6ㄱ)과 (7ㄱ)의 의미는 각각 (6ㄴ, ㄷ)과 (7ㄴ~ㄹ)의 단순한 합이 아
님을 알 수 있다. 즉, 구성 요소들의 의미에 어떠한 의미가 더 추가되
거나 바뀌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6ㄱ)은 (6ㄴ)의 의미가, (7ㄱ)은
(7ㄴ)의 의미가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선행 요소가 품사
결정의 요소라 할 만하다.

(8) ㄱ. 오호-애재(嗚呼哀哉)(감) ‘아, 슬프도다’라는 뜻으로, 슬플
때나 탄식할 때 하는 말.

ㄴ. 오호3(嗚呼)(감) 슬플 때나 탄식할 때 내는 소리.

ㄷ. 애재(哀哉)(감) ‘슬프도다’의 뜻으로, 슬퍼서 울고 싶은 상
태일 때 하는 말.

(8ㄱ)은 (8ㄴ)과 (8ㄷ)의 의미로 산출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8ㄴ)의
의미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선행 요소가 품사 결정의 요
소라고 할 수 있다.

(4ㄹ)처럼 구성 요소와 전체 구성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9) ㄱ. 아-아1(감) 「1」 감격하거나 탄식할 때 내는 소리. 「2」 뜻밖
의 일을 당하였을 때 나오는 소리. 「3」 떼 지어 싸울 때, 기

운을 내거나 돌우려고 내는 소리.

ㄴ. 아2(감) 「1」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초조하거나, 다급할 때 가볍게 내는 소리. 「2」 기쁘거나, 슬프거나, 뉘우치거나, 칭찬할 때 가볍게 내는 소리. 「3」 말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가볍게 내는 소리. 「4」 모르던 것을 깨달을 때 내는 소리.

ㄷ. 어-어(감) 「1」 뜻밖의 일을 당했을 때나 일이 생각과 달리 되어 갈 때 내는 소리. 「2」 폐를 지어 싸울 때, 힘을 내거나 돌우려고 힘 있게 내는 소리.

ㄹ. 어2(감) 「1」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초조하거나, 다급할 때 나오는 소리. 「2」 기쁘거나, 슬프거나, 뉘우치거나, 칭찬할 때 내는 소리. 「3」 말을 하기에 앞서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내는 소리.

(9ㄱ)과 (9ㄴ)을 비교해 보면, 본래 구성 요소인 (9ㄴ)의 의미가 더 많다. 그리고 (9ㄱ)의 각 의미와 (9ㄴ)의 각 의미를 일 대 일로 대응시킬 수 없음도 확인되며, (9ㄴ)에 없는 의미가 (9ㄱ)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이처럼 동일한 선·후행 요소가 결합되었지만, 의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품사 결정 요소를 확정하기가 곤란하다.⁹⁾

(9ㄷ)의 「1」은 (9ㄹ)의 「1」과 유사한데, (9ㄷ)의 「2」는 (9ㄹ)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는 동일한 단어가 중첩되어 전체 구성을 이룬 것이라는 점에서, 구성 요소 중 어느 쪽이 품사를 결정하는 요소라 파악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이는 품사 결정 요소를 확정 짓기가 곤란하다.

9) 이러한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은, ① 실제 쓰임에서 구성 요소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굳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감탄사가 생겨난 것으로 처리하여 복합어로 처리하지 않고 단일어로 처리하는 것, ② 조어법의 측면에서 본래 구성 요소의 의미에 전체 구성의 의미를 조정하는 것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②는 실제 언어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므로 ①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복합어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10) ㄱ. 에이-췌(감) 재채기를 한 뒤에 내는 소리. 이 소리를 외치면 감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물러간다고 한다. =개치네췌.
 ㄴ. 에이1(감) 「1」 실망하여 단념할 때 내는 소리. 「2」 속이 상하거나 마음에 달갑지 아니할 때 내는 소리. 「3」 아랫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겨 꾸짖거나 속이 상할 때 내는 소리. =에이끼.
 ㄷ. 췌(감) 어린아이가 다쳐서 아파할 때 다친 곳을 만지며 위로할 때 내는 소리. =췌췌.

(10)의 ‘에이-췌’ 역시 (9)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이 역시 품사 결정 요소를 확정 짓기가 곤란하다.

(4ㄱ)처럼 구성 요소 중 하나의 의미와 같은 감탄사도 있다.

- (11) ㄱ. 췌-췌(감) 어린아이가 다쳐서 아파할 때 다친 곳을 만지며 위로할 때 내는 소리.
 ㄴ. 췌1(감) = 췌췌.

(11ㄱ)을 ‘췌1+췌1’로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 이유는 (11ㄴ)과 의미적인 차이가 전혀 없어서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된다고 보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4ㄴ)은 감탄사 전체 의미가 그 구성 요소 중 어느 하나의 일부 의미와 동일한 경우이다.

- (12) ㄱ. 에구-에구(감) 「1」 몹시 슬피 우는 소리. 「2」 어디가 몹시 아프거나, 몸이 힘들 때 하는 소리.
 ㄴ. 에구(감) 「1」 ‘어이구「1」’의 준말. 「2」 ‘어이구「2」’의 준말. 「3」 ‘어이구「3」’의 준말.
 ㄷ. 어이구(감) 「1」 몹시 아프거나 힘들거나 놀라거나 원통하거나 기막힐 때 내는 소리. 「2」 몹시 반갑거나 좋을 때 내는 소리. 「3」 몹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탄식할 때 내는 소리.

(12ㄱ)은 (12ㄴ)의 ‘에구’가 중첩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지 않았다. 또한 ‘아이고’의 준말인 ‘애고1’이 중첩된 ‘애고-애고’는 (4ㄴ)처럼 ‘강조’의 의미로 풀이되었는데, ‘어이구’의 준말인 ‘에구-에구’는 그렇지 않다. 덧붙여 ‘에구’가 ‘어이구’의 준말이라면, 준말인 중첩 감탄사 ‘에구-에구’와 대응되는 ‘*어이구-어이구’가 당연히 함께 등재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표준』에는 ‘*어이구-어이구’가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최형용(2016:420)에서는 이러한 합성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감탄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¹⁰⁾

마지막으로 (4ㄸ)에 대해 살펴보자. 이를 위해서는 ‘어허-둥둥’과 ‘어화-둥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13) ㄱ. 어허-둥둥(감) 노랫가락을 곁하여 아기를 어를 때 내는 소리. = 어화둥둥.

ㄴ. 어화-둥둥(감) 노랫가락을 곁하여 아기를 어를 때 내는 소리. ≍ 어둥둥, 어허둥둥.

ㄷ. 어허(감) 「1」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내는 소리. 「2」 조금 못마땅하거나 불안할 때 내는 소리.

ㄹ. 어화1(감) 노랫가락 따위에서 기쁜 마음을 나타내어 주의

10) 합성어와 구의 차이에 대한 근거로, 아래의 비대칭성 예를 제시했다.

예) 밥상/*국상, 술상/*떡상, 헌책방/*새책방, 눈뜨다/*귀뜨다 등

그런데 이러한 예들은 주로 명사나 명사구 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감탄사의 경우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귀뜨다’가 불가능한 이유는, 특별한 비유적 의미가 아니라면 ‘귀’는 ‘뜨다’와 관련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 이때 ‘귀를 번쩍 떴다’와 같은 문장으로 쓰인다고 했는데, 과연 이러한 문장이 쓰일지 궁금하다. ‘눈뜨다’는 통사적 구성인 ‘눈을 뜨다’가 한 단어가 된 것인데, 이는 이러한 동작 또는 인식 등의 주체가 능동적인 행위 또는 작용 등의 주체로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귀뜨다’는 ‘귀를 뜨다’라는 통사적 구성이 대응되어야 한다. 하지만 ‘귀’는 동작 또는 인식 등의 주체로서의 작용보다는, 외부적인 자극 등으로 인해 주체가 동작되거나 인식되는 피동적인 행위 또는 작용 등의 주체로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귀뜨다’라는 합성어가 없는 것은, 단순히 복합어의 비대칭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를 불러일으키는 소리. ㄴ 어우하.

ㄹ. 똥똥3(감) 어린아이를 안거나 쳐들고 어를 때 내는 소리.

(13ㄱ, ㄴ)은 뜻풀이가 완전히 동일한데, 그 의미적 관련성을 표시한 기호가 서로 다르다. 즉, (13ㄱ)에서는 ‘어허똥똥=어화똥똥’으로, (13ㄴ)에서는 ‘어화똥똥=어허똥똥’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의 뜻풀이로 본다면 후행 요소인 ‘똥똥’이 그 의미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13ㄷ)과 (13ㄹ)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곧 ‘어허’는 ‘어허-똥똥’의 의미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화’는 ‘어화-똥똥’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감탄사를 구성 요소로 하여 구성된 새로운 감탄사라는 점이 공통적이다. 하지만 그 구성 요소의 의미로 볼 때에는 (13ㄱ)은 선행 요소의 의미가 바뀐 것이며, (13ㄴ)은 구성 요소의 의미의 합이라 할 수 있다.

2) 감탄사+감탄사=부사감탄사 통용

번호	표제어	품사	선행 품사	후행 품사
1	얼싸-똥똥	부사, 감탄사	감탄사(‘얼싸1’의 「1」)	감탄사(똥똥3)

(14) ㄱ. 얼싸-똥똥 [I] 「부사」 남의 운에 끌리어 멋모르고 행동하는 모양. [II] 「감탄사」 아기를 어를 때 흥겹게 내는 소리.

ㄴ. 얼싸1(감) 「1」 흥겨울 때 내는 소리. 「2」= 얼씨구「2」.

ㄷ. 똥똥3(감) 어린아이를 안거나 쳐들고 어를 때 내는 소리.

ㄹ. 얼씨구(감) 「1」 흥에 겨워서 떠들 때 가볍게 장단을 맞추며 내는 소리. 「2」 보기에 아니꼬워서 조롱할 때 내는 소리.

(14ㄱ~ㄷ)을 통해 볼 때, (14ㄱ)은 선행 요소가 후행 요소를 수식하는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곧 ‘흥겹게 어린아이를 안거나 쳐들고 어

를 때 내는 소리'로 해석 가능한 것으로 파악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품사 결정 요소는 후행 요소인 (14ㄷ)이라 할 수 있다.

3.1.2. 선행 요소가 감탄사인 것

1) 감탄사+명사·부사·감탄사 통용=감탄사

번호	표제어	품사	선행 품사	후행 품사
1	아이-참	감탄사	감탄사(아이2)	명사, 부사, 감탄사
2	아니-참	감탄사	감탄사(아니2)	명사, 부사, 감탄사

- (15) ㄱ. 아이-참(감) 못마땅하거나 초조하거나 수줍을 때 하는 말.
 ㄴ. 아이2(감) 「1」 무엇을 재촉하거나 마음에 선뜻 내키지 아니할 때 내는 소리. 「2」=아이고 「1」. 「3」=아이고 「2」.
 ㄷ. 참1 [1] 「명사」 「1」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 「2」 「논리」 이치 논리에서, 진릿값의 하나. 명제가 진리인 것을 이른다. [II] 「부사」=참으로. [III] 「감탄사」 「1」 잊고 있었거나 별생각 없이 지내던 것이 문득 생각날 때 내는 소리. 「2」 매우 딱하거나 어이가 없을 때 내는 소리. 「3」 감회가 새롭거나 조금 감탄스러울 때 나오는 소리. 「4」 매우 귀찮을 때 내는 소리.

(15ㄴ, ㄷ)으로 볼 때, (15ㄱ)과 의미적으로 유사한 것은 (15ㄴ)이므로 선행 요소가 전체 구성의 품사를 결정한 것에 해당한다.

- (16) ㄱ. 아니-참(감) 어떤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 말할 때, 그 말 앞에 하는 말.
 ㄴ. 아니2(감) 「1」 아랫사람이나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 「2」 놀라거나 감탄스러울 때, 또는 의아스러울 때 하는 말.

그런데 (16ㄱ)의 의미는 (16ㄴ)의 「2」와는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15ㄷ)의 [Ⅲ] 「1」에 가깝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후행 요소가 품사 결정 요소가 된다.

2) 감탄사+대명사감탄사 통용=감탄사

번호	표제어	품사	선행 품사	후행 품사
1	저-거시기	감탄사	감탄사(저5)	대명사, 감탄사(거시기)

- (17) ㄱ. 저-거시기(감) 「1」 어떤 말이 잘 떠오르지 아니할 때 쓰는 말. 「2」 말을 꺼내기가 거북하거나 곤란할 때 쓰는 말.
 ㄴ. 저5(감) 「1」 어떤 생각이나 말이 얼른 잘 떠오르지 아니할 때 쓰는 말. 「2」 말을 꺼내기가 어색하거나 곤란하여 머뭇거릴 때 쓰는 말.
 ㄷ. 거시기 [Ⅰ] 「대명사」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한 사람 또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 [Ⅱ] 「감탄사」 하려는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가 거북할 때 쓰는 군소리.

(17ㄱ)은 (17ㄴ), (17ㄷ[Ⅱ])와 아주 유사하다. 이때 (17ㄱ)이 (17ㄴ)처럼 의미가 동일하게 분리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품사 결정의 요소는 선행 요소라 할 수 있다.

3) 감탄사 + 조사 = 감탄사

번호	표제어	품사	선행 품사	후행 품사
1	가설랑-은	감탄사	감탄사	조사
2	아이고-나	감탄사	감탄사	조사 ‘나9’의 「4」
3	아이고머니-나	감탄사	감탄사([감탄사+?]+조사)	조사 ‘나9’의 「4」
4	애고머니-나	감탄사	감탄사([감탄사+?]+조사)	조사 ‘나9’의 「4」
5	어이구머니-나	감탄사	감탄사([감탄사+?]+조사)	조사 ‘나9’의 「4」
6	에구머니-나	감탄사	감탄사	조사 ‘나9’의 「4」
7	에구머니-나	감탄사	감탄사	조사 ‘나9’의 「4」
8	에꾸-나	감탄사	감탄사	조사 ‘나9’의 「4」

이는 감탄사에 조사가 결합되어 감탄사로 쓰이는 것이다.¹¹⁾

(18) ㄱ. 가설랑(감) = 가설랑은.

ㄴ. 가설랑-은(감) 글을 읽거나 말을 할 때, 또는 말을 하다가
막힐 때 중간에 덧붙여 내는 군소리.

(18ㄱ)과 (18ㄴ)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후행 요소는 의미적으로나 형태적으로나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행 요소가 품사 결정 요소가 된다.

(19) ㄱ. 아이고(감) 「1」 아프거나 힘들거나 놀라거나 원통하거나
기막힐 때 내는 소리. 「2」 반갑거나 좋을 때 내는 소리.
「3」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탄식할 때 내는 소리. 「4」 우
는 소리. 특히 상중(喪中)에 곡하는 소리를 이른다.

ㄴ. 아이고-나(감) 어린아이가 하는 묘한 재롱이나 착한 행동
을 보고 기특하다고 할 때 가볍게 내는 소리.

ㄷ. 아이고-머니(감) ‘아이고「1」’보다 느낌이 더 깊고 간절할

11) 이들은 ‘가설랑-은’을 제외하면, ‘놀람’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하나의 소형문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때 내는 소리.

- ㄹ. 아이고머니-나(감) ‘아이고머니’를 강조하여 내는 소리.
- ㄴ. 애고머니-나(감) ‘아이고머니나’의 준말.¹²⁾
- ㄷ. 어이구-머니(감) ‘어이구「1」’보다 느낌이 더 간절할 때 내는 소리.
- ㄷ. 어이구머니-나(감) ‘어이구머니’를 강조하여 내는 소리.
- ㅇ. 에그(감) 「1」 안타깝거나 안쓰러운 일을 볼 때 내는 소리.
「2」 징그럽거나 끔찍하거나 섬뜩할 때 내는 소리.
- ㅅ. 에그-나(감) 「1」 ‘에그「1」’를 강조하여 내는 소리. 「2」 ‘에그「2」’를 강조하여 내는 소리.
- ㅈ. 에꾸(감) 깜짝 놀랐을 때 나오는 소리.
- ㅋ. 에꾸-나(감) ‘에꾸’를 강조하여 내는 소리.

(19ㄱ)과 (19ㄴ)은 의미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19ㄴ)은 복합어 감탄사로 처리하기보다는 단일어 감탄사로 처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즉, (19ㄴ)의 ‘나’와, (19ㄹ, ㄴ, ㅅ, ㅅ, ㅋ)의 후행 요소인 ‘나’가 같은 의미 기능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단일어 감탄사로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19ㄹ, ㄴ, ㅅ, ㅅ, ㅋ)의 후행 요소인 ‘나’가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들의 뜻풀이에서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에서처럼 조사로 파악하고자 한다.

- (20) 나9(조사) ① 「1」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따위의 뒤에 붙어) 마음에 차지 아니하는 선택, 또는 최소한 허용되어야 할 선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때로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마치 그것이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인 것처럼 표현하는 데 쓰기도 한다. 「2」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마치

12) ‘애고머니’는 단일어 감탄사로서, ‘아이고머니’의 준말이다.

현실의 것인 양 가정된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빈정거리는 뜻이 드러난다. 「3」(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어떤 대상이 최선의 자격 또는 조건이 됨을 뜻하는 보조사. 「4」(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수량이 크거나 많음, 또는 정도가 높음을 강조하는 보조사. 흔히 놀람의 뜻이 수반된다. 「어떻게 앉은 자리에서 달걀을 다섯 개나 먹었느냐?/선생님은 시를 백 수나 외우신다더라./식구가 그렇게나 많아요? 「5」(수량의 단위나 정도를 나타내는,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수량이나 정도를 어렵잡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6」(수량의 단위나 정도를 나타내는, 받침 없는 말 뒤에 붙어) 많지는 아니하나 어느 정도는 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7」(종결 어미 ‘-다’, ‘-니다’, ‘-는다’, ‘-라’ 따위에 붙어) 화자가 인용하는 사람이 되는 간접 인용절에서 인용되는 내용에 스스로 가벼운 의문을 가진다든가 인용하는 사람은 그 내용에 별 관심이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흔히 빈정거리는 태도나 가벼운 불만을 나타낸다. 인용자와 인용 동사는 생략될 때가 많다. 「8」(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상관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맨 뒤에 나열되는 말에는 붙지 않을 때도 있다. 「9」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뒤 절에는 결국 같다는 뜻을 가진 말이 온다. ②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나열되는 사물 중 하나만이 선택됨을 나타낸다.

(20)에서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4」뿐이지만, 용례에서 보듯이, (19ㄷ, ㄱ, ㄴ, ㄷ, ㄹ)에서의 ‘나’와 일치하는 의미라고 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표준』에 제시된 ‘나’ 중에서는 이것이 가장 가까운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

한편, ‘아이고머니-나, 어이구머니-나’는 선행 요소가 복합어로 구

성되어 있는 구조를 보인다. 즉, ‘[[아이고]머니]-나, [[어이구]머니]-나’처럼 계층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때 문제는 ‘*머니’가 『표준』에는 없어서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¹³⁾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고머니, 어이구머니’는 하나의 감탄사로서, 선행 요소가 품사 결정 요소라는 것이다.

(21) 가. 아이고-머니(감) ‘아이고」1」’보다 느낌이 더 깊고 간절할 때 내는 소리.

나. 어이구-머니(감) ‘어이구」1」’보다 느낌이 더 간절할 때 내는 소리.

결과적으로 ‘나’를 조사로 본다면, 이들이 결합된 복합어 감탄사에서는 선행 요소가 품사 결정 요소라고 볼 수 있다.

3.2. 품사 통용의 감탄사가 포함된 유형

3.2.1. 선행 요소가 품사 통용의 감탄사인 유형

1) 명사부사감탄사 통용 + 명사 = 명사부사감탄사 통용

번호	표제어	품사	선행 품사	후행 품사
1	참-말	명사, 부사, 감탄사	명사, 부사, 감탄사	명사

이들은 모두 선행 요소의 품사와 의미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 요소가 품사 결정 요소에 해당한다.

13) 그런데 ‘애고머니-나’의 경우에는 ‘[[애고]머니]-나’로 분석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표준』에 ‘애고머니’가 단어들 감탄사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밖의 ‘머니’가 결합된 다른 복합어 감탄사에서는 ‘머니’를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보아 복합어 감탄사로 제시되어 있다.

(22) ㄱ. 참-말 [Ⅰ] 「명사」 「1」 사실과 조금도 틀림이 없는 말. 「2」 (‘참말은’ 꼴로 쓰여) 겉으로 내비치지 아니한 사실을 말할 때 쓰는 말. 「3」 (‘참말이지’ 꼴로 쓰여) 자신의 말을 강조할 때 쓰는 말. [Ⅱ] 「부사」 사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과연. =참말로. [Ⅲ] 「감탄사」 「1」 어떤 일을 심각하게 느끼거나 동의할 때 하는 말. 「2」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어떤 사람이나 물건 따위에 대하여 화가 나거나 기가 막힘을 나타내는 말.

ㄴ. 참1 [Ⅰ] 「명사」 「1」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 「2」 『철학』 이치 논리에서, 진릿값의 하나. 명제가 진리인 것을 이른다. [Ⅱ] 「부사」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과연. =참으로. [Ⅲ] 「감탄사」 「1」 잊고 있었거나 별생각 없이 지내던 것이 문득 생각날 때 내는 소리. 「2」 매우 딱하거나 어이가 없을 때 내는 소리. 「3」 감회가 새롭거나 조금 감탄스러울 때 나오는 소리. 「4」 매우 귀찮을 때 내는 소리.

ㄷ. 말1 「명사」 「1」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 곧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목구멍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나타내는 소리를 가리킨다. 늑어사. 「2」 음성 기호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행위. 또는 그런 결과물. 늑소리. 「3」 일정한 주제나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 「4」 단어, 구, 문장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5」 소문이나 풍문 따위를 이르는 말. 「6」 (‘-으라는/-다는 말이다’ 구성으로 쓰여) 다시 강조하거나 확인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7」 (‘-으니/-기에 말이지’ 구성으로 쓰여) ‘망정이지’의 뜻을 나타내는 말. 「8」 (‘-을 말이면’, ‘-을 말로는’, ‘-을 말로야’ 구성으로 쓰여) ‘-을 것 같으면’의 뜻을 나타내는 말. 「9」 (‘-어(아)야 말이지’ 구성으로 쓰여) 어떤 행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탄식하는 말. 「10」 (주로 ‘말이냐’, ‘말이야’ 꼴로 명사 뒤에 쓰여) 앞에서 언급한 사실을 강조하여 말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11」(주로 ‘말이야’, ‘말이죠’, ‘말이지’, ‘말인데’ 꼴로 쓰여) 어감을 고르게 할 때 쓰는 군말. 상대방의 주의를 끌거나 말을 다짐하는 뜻을 나타낸다.

(22ㄱ)의 명사와 부사로서의 의미는 (22ㄴ)의 [I] 「1」과 [II], 그리고 (22ㄷ 「6」, 「10」)과 관련성을 띤다 하겠다.¹⁴⁾ 그런데 (22ㄱ[III])과 (22ㄴ[III])은 서로 무관해 보인다. 그럼에도 (22ㄱ[III]「2」)와 (22ㄴ[III]「2」)의 유사성이 어느 정도 발견되며, 감탄사라는 품사의 동일성 등을 고려한다면 선행 요소를 품사 결정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관형사감탄사 통용 + 의존 명사 = 명사감탄사 통용

번호	표제어	품사	선행 품사	후행 품사
1	까짓-것	명사, 감탄사	관형사, 감탄사	의존 명사

이 유형에서 선행 요소는 관형사와 감탄사로 통용되는 것 중에서 감탄사가, 후행 요소는 의존 명사의 명사성으로 인해 전체 구성의 품사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23) ㄱ. 까짓-것 [I] 「명사」 별것 아닌 것. [II] 「감탄사」=까짓1 [II].

ㄴ. 까짓1 [I] 「관형사」 별것 아닌. 또는 하찮은. [II] 「감탄사」 별것 아니라는 뜻으로, 무엇을 포기하거나 용기를 낼 때 하는 말.

ㄷ. 것1(의존 명사) 「1」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 「2」 사람을 낮추어 이르거나 동물을 이르는 말. 「3」 그 사람의 소유물임을 나타내는 말. 「4」 말하는 이의

14) 이때 (22ㄱ)의 [I] 「2」는 (22ㄴ, ㄷ)과 관련성이 없지만, (22ㄷ)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확신, 결정, 결심 따위를 나타내는 말. 「5」 말하는 이의
전망이나 추측, 또는 주관적 소신 따위를 나타내는 말.
「6」 명령이나 시킴의 뜻을 나타내면서 문장을 끝맺는 말.

(23ㄱ)에서 감탄사로서의 뜻은 (23ㄴ)의 감탄사로서의 의미와 동일하다. 그런데 (23ㄴ)에 (23ㄷ)이 결합되어 전체 구성을 이루고 있다. 즉, 후행 요소는 전체 구성의 의미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아서 마치 잉여적인 요소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3ㄱ)의 품사 결정 요소는 선행 요소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까짓-것=까짓1’의 양상은, 앞에서 본 (11)의 ‘췌-췌=췌1’과 동일하다. 따라서 품사 결정 요소는 선행 후행 요소 중 어느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3.2.2. 후행 요소가 품사 통용의 감탄사인 유형

1) 관형사+명사·감탄사 통용=명사·감탄사 통용

번호	표제어	품사	선행 품사	후행 품사
1	새-아가	명사, 감탄사	관형사	명사, 감탄사

(24) ㄱ. 새-아가 [I] 「명사」 시부모가 새 며느리를 사랑스럽게 이르는 말. [II] 「감탄사」 시부모가 새 며느리를 사랑스럽게 부르는 말.

ㄴ. 새6(관) 「1」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 「2」 사용하거나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ㄷ. 아가1 [I] 「명사」 어린아이의 말로, ‘아기1’를 이르는 말.
[II] 「감탄사」 「1」 아기를 부를 때 쓰는 말. 「2」 시부모가 젊은 며느리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

(24ㄱ)의 감탄사 의미로 볼 때, (24ㄴ)과 (24ㄷ)의 의미적 합성으로

이루어진 것에 가깝다. 다만, (24ㄷ)에는 ‘친근하게’로, (24ㄱ)에는 ‘사랑스럽게’로 차이를 보이는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선행 요소인 관형사로서의 쓰임이 없으므로, 후행 요소가 품사 결정 요소에 해당한다.

2) 대명사+명사·부사·감탄사 통용=감탄사

번호	표제어	품사	선행 품사	후행 품사
1	거-참	감탄사	대명사(거1)	명사, 부사, 감탄사
2	그거-참	감탄사	대명사(그-거)	명사, 부사, 감탄사
3	그것-참	감탄사	대명사(그-것)	명사, 부사, 감탄사

(25) ㄱ. 거-참(감) ‘그것참’의 준말.

- ㄴ. 그것-참(감) 사정이 매우 딱하거나 어이가 없을 때, 또는 뜻밖에도 일이 잘되었을 때 내는 소리.
- ㄷ. 그거-참(「감」) ‘그것참’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
- ㄹ. 그-거(대명) ‘그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 ‘그것’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형태인 ‘그것이다’는 ‘그거다’로 줄어서 ‘그거’의 형태가 유지되고, ‘그것’에 주격 조사 ‘이’가 붙은 형태인 ‘그것이’는 ‘그게’의 형태로 바뀐다.
- ㄹ. 그-것(대명) 「1」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2」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3」 ‘그 사람’을 낫잡아 이르는 삼인칭 대명사. 「4」 ‘그 아이’를 귀엽게 이르는 삼인칭 대명사.
- ㅁ. 참1 [Ⅰ] 「명사」 「1」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 「2」 「논리」 이치 논리에서, 진릿값의 하나. 명제가 진리인 것을 이른다. [Ⅱ] 「부사」=참으로. [Ⅲ] (감탄사) 「1」 잊고 있었거나 별생각 없이 지내던 것이 문득 생각날 때 내는 소리. 「2」 매우 딱하거나 어이가 없을 때 내는 소

리. 「3」 감회가 새롭거나 조금 감탄스러울 때 나오는 소리.
 리. 「4」 매우 귀찮을 때 내는 소리.

(25ㄱ~ㄷ)은 (25ㄴ)의 [Ⅲ] 「2」에 가장 가깝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그리고 그 차이 나는 의미를 (25ㄹ, ㅁ)이 제공하는 것도 아니므로, 후행 요소가 감탄사로서의 의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25ㄱ~ㄷ)이 실제 상황에서의 쓰임에 따라 (25ㄴ)에 없는 의미가 덧붙은 것으로 보인다.

이 유형의 선행 요소는 대명사로서, 전체 단어의 의미에 관여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후행 요소는 명사, 부사, 감탄사로 모두 쓰이며, 의미 역시 전체 감탄사의 의미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품사 결정 요소는 후행 요소라 할 수 있다.

3.2.3. 선·후행 요소가 모두 품사 통용의 감탄사인 유형

이 유형은 선·후행 요소 모두가 품사 통용의 감탄사이면서, 선·후행 요소 모두 동일한 품사로 통용되는 감탄사로 결합된다.

1) 감탄사·명사 통용 + 감탄사·명사 통용 = 감탄사

번호	표제어	품사	선행 품사	후행 품사
1	만·만세(萬萬歲)	감탄사	감탄사·명사(‘만세4’의 일부)	감탄사·명사(만세4)

이 유형은 감탄사와 명사로 통용되는 ‘만세4(萬歲)’가 중첩되면서, 선행 요소로 쓰일 때에는 뒤 음절이 생략되어 후행 요소와 결합한 것이다. 다만, ‘만세4’는 품사 통용인데, 이들이 결합된 ‘만·만세’는 감탄사로만 쓰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유형에서는 각 구성 요소가 전체 감탄사와 의미적 연관성을 지니므로, 선·후행 요소 모두가 그 품사를

결정하는 요소라 하겠다.

- (26) ㄱ. 만-만세(萬萬歲)(감) ‘만세4(萬歲)’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ㄴ. 만세4(萬歲)(감·명) 바람이나 경축, 환호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외치는 소리.

2) 부사감탄사 통용 + 부사감탄사 통용 = 부사감탄사 통용¹⁵⁾

번호	표제어	품사	선행 품사	후행 품사
1	와-와	부사, 감탄사	부사, 감탄사(와2)	부사, 감탄사(와2)
2	쫓-쫓	부사, 감탄사	부사, 감탄사(쫓)	부사, 감탄사(쫓)

이 유형은 각 구성 요소들이 부사와 감탄사로 통용되는 단어로서, 이들이 결합하여 역시 부사와 감탄사로 통용되는 단어가 된 것이다. 또한 그 의미에서도 선·후행 요소가 모두 관련성이 드러나므로, 선·후행 요소 모두가 품사 결정에 관여한다 하겠다.

3.3. 문법 범주가 불분명한 구성 요소가 포함된 유형

3.3.1. 선행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불분명한 유형

1) 불분명한 단위 + 감탄사 = 감탄사

번호	표제어	품사	선행 품사	후행 품사
1	개치네-췌	감탄사	?	감탄사(췌1)

15) 『표준』에서 품사 통용을 나타내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하나는 ‘[Ⅰ] ‘부사’, [Ⅱ] ‘감탄사.’’이며, 다른 하나는 ‘부사·감탄사’이다. 그런데 이들 사이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왜 이렇게 구별해서 제시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뜻풀이로 미루어 볼 때 전자는 품사에 따른 의미가 서로 다르고 후자는 품사에 따라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27) ㄱ. 개치네-췌(감) 재채기를 한 뒤에 내는 소리. 이 소리를 외치면 감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물러간다고 한다.능에이췌.

ㄴ. 췌1(감) = 췌췌.

ㄷ. 췌-췌(감) 어린아이가 다쳐서 아파할 때 다친 곳을 만지며 위로할 때 내는 소리.

먼저 (27ㄱ)의 선행 요소인 ‘*개치네’는 『표준』에 등재되지 않아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후행 요소인 ‘췌1’ 역시 (27ㄱ)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품사 결정 요소가 무엇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¹⁶⁾

(28) ㄱ. 어허-둥둥(감) = 어화둥둥.

ㄴ. 어화-둥둥(감) 노랫가락을 곁하여 아기를 어를 때 내는 소리.

ㄷ. 어허(감) 「1」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내는 소리. 「2」 조금 못마땅하거나 불안할 때 내는 소리.

ㄹ. 어화1(감) 노랫가락 따위에서 기쁜 마음을 나타내어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소리.

ㅁ. 둥둥3(감) 어린아이를 안거나 쳐들고 어를 때 내는 소리.

(28ㄱ)과 (28ㄴ)이 동의어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그 구성 요소의 결합 양상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28ㄱ, ㄴ)에서 ‘어허=어화’가 되어야 하는데, (28ㄷ, ㄹ)을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28ㄱ, ㄴ)의 공통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후행 요소인 ‘둥둥3’이라고 보아야 하며, 전체 감탄사의 의미로 볼 때에도 이것이 품사 결정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¹⁷⁾

16) 이때 의미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표제어에 따라 그 의미적 연관성이 서로 다른 기호로 표시되어 있다. 즉, ‘개치네-췌’가 표제어인 경우에는 ‘개치네-췌 능에이췌’로, ‘에이-췌’가 표제어인 경우에는 ‘에이-췌 = 개치네췌.’로 표시된다는 것이다.

17) (28ㄴ)의 경우 선행 요소인 ‘어화1’의 ‘노랫가락’이라는 의미만을 부분적으로 취했

3.3.2. 후행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불분명한 유형

1) 감탄사 + 불분명한 단위 = 감탄사

번호	표제어	품사	선행 품사	후행 품사
1	따로따로-따따로	감탄사	감탄사(따로-따로2)	?
2	아나-나비아	감탄사	감탄사(아나2)	명사+호격 조사?
3	아이고-머니	감탄사	감탄사	?(*'머니' 없음)
4	어기야-디아	감탄사	감탄사	?
5	어이구-머니	감탄사	감탄사	?(*'머니' 없음)
6	얼씨구나-절씨구나	감탄사	감탄사	?
7	얼씨구-절씨구	감탄사	감탄사	?
8	오호-통제(嗚呼痛哉)	감탄사	감탄사(오호3)	?(*'통제' 없음)

(29) ㄱ. 따로따로-따따로(감) = 섬마섬마.

ㄴ. 따로-따로2(감) = 섬마섬마.

ㄷ. 섬마-섬마(감) 어린아이가 따로 서는 법을 익힐 때, 어른이 붙들었던 손을 떼면서 내는 소리.

ㄹ. 따로(부) 「1」 한데 섞이거나 함께 있지 아니하고 혼자 떨어져서. 「2」 예사의 것과 다르게 특별히.

(29ㄷ, ㄹ)을 보면 (29ㄱ)의 본래 구성 요소를 ‘따로「1」’에 해당한다고 확정하기 어렵다. 또한 (29ㄷ)의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하는 ‘*섬마’는 『표준』에 제시되어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29ㄷ)은 본래부터 하나의 단어로 쓰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¹⁸⁾ 이에 따라 단어의 발생 순서를 생각해 보자. (29ㄱ, ㄴ, ㄷ)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때 (29ㄷ)이 본래 있었던 단어이며, 다음으로 (29ㄴ)이 생긴 후 (29ㄱ)이 쓰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기 때문에 주된 품사 결정 요소라고 하기에는 곤란하다.

18) ‘섬마-섬마’를 동의어 뜻풀이의 기준으로 삼은 것을 보아도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 만약 그러하다면 복합어 표시인 ‘·’(붙임표)를 삭제해야 할 것이다.

한편, (29ㄴ)의 표제어를 보면, ‘따로’를 구성 요소로 하는 복합어로 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의미를 나타내는 ‘따로「1」’의 의미에서 다른 의미로 바뀌거나 확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 (30) ㄱ. 아나-나비아(감) 고양이를 부를 때에 쓰는 소리.
 ㄴ. 아나2(감) = 아나나비아.
 ㄷ. 나비2(명) 고양이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ㄹ. 야10(조)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손아랫사람이나 짐승 따위를 부를 때 쓰는 격 조사.

(30ㄱ)은 (30ㄴ)과 동의어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전체의 의미가 구성 요소 중 선행 요소와 의미가 동일한 감탄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후행 요소인 ‘나비아’는 (30ㄷ, ㄹ)로 보면 ‘체언+조사’의 구성이다. 그런데 이들 의미와 관련되는 ‘*아나’가 『표준』에 없으므로, 그 품사 결정 요소는 후행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1) ㄱ. 아이고-머니(감) ‘아이고「1」’보다 느낌이 더 깊고 간절할 때 내는 소리.
 ㄴ. 아이고(감) 「1」 아프거나 힘들거나 놀라거나 원통하거나 기막힐 때 내는 소리.
 ㄷ. 어이구-머니(감) ‘어이구 「1」’보다 느낌이 더 간절할 때 내는 소리.
 ㄹ. 어이구(감) 「1」 몹시 아프거나 힘들거나 놀라거나 원통하거나 기막힐 때 내는 소리.

(31ㄱ, ㄷ)으로 보면 분명히 ‘*머니’가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어야 하는데, 『표준』에는 ‘*머니’라는 단어나 어근이 없으므로 이렇게 불

수 없다. 또한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파생 접사에 가까울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선행 요소를 품사 결정 요소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32) ㄱ. 어기야-디아(감) 뱃사람들이 노를 저으며 흥겨울 때 내는 소리.¹⁹⁾

ㄴ. 어기야(감) = 어기야디아.

(32ㄱ)은 (32ㄴ)으로 미루어 볼 때, 선행 요소가 전체 구성의 의미와 동일하다. 이때 후행 요소인 ‘*디아’는 『표준』에 없으므로 그 의미를 확정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이 경우의 품사 결정 요소는 선행 요소로 보아야 한다.

(33) ㄱ. 얼씨구나-절씨구나(감) ‘얼씨구절씨구’를 강조하여 내는 소리.

ㄴ. 얼씨구나(감) 「1」 ‘얼씨구 「1」’을 강조하여 내는 소리. 「2」 ‘얼씨구 「2」’를 강조하여 내는 소리.

ㄷ. 얼씨구(감) 「1」 흥에 겨워서 떠들 때 가볍게 장단을 맞추며 내는 소리. 「2」 보기에 아니꼬워서 조롱할 때 내는 소리.

ㄹ. 얼씨구-절씨구(감) 흥겨울 때에 장단을 맞추며 변화 있게 내는 소리.

(33ㄱ, ㄴ, ㄹ)을 보면 후행 요소로 ‘*절씨구(나)’가 있을 법하지만, 『표준』에는 단어나 어근으로도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33ㄱ)과 (33

19) 여기에서 ‘어기’는 『표준』에 다음의 표제어가 등재되어 있지만,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ㄱ. 어기1(漁基)(명) = 어장10(漁場)「1」(고기잡이를 하는 곳).

ㄴ. 어기2(漁期)(명) 고기를 잡는 시기. 또는 어떤 특정한 구역에서 어떤 종류의 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기.

ㄷ. 어기3(漁磯)(명) = 낚시터.

ㄹ)의 품사 결정 요소는 선행 요소로 보아야 한다.

한편, (33ㄴ)과 (33ㄷ)에서 보이는 차이는 ‘강조’의 의미이며, 이것은 (33ㄴ)에서 ‘얼씨구나’의 ‘나’로 인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표준』에는 ‘얼씨구-나’로 제시되지 않고 ‘얼씨구나’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단일어로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²⁰⁾

- (34) ㄱ. 오호-통재(嗚呼痛哉)(감) (주로 ‘오호통재라’ 꼴로 쓰여)
 ‘아, 비통하다’라는 뜻으로, 슬플 때나 탄식할 때 하는 말.
 ㄴ. 오호3(嗚呼)(감) (주로 ‘오호라’ 꼴로 쓰여) 슬플 때나 탄
 식할 때 내는 소리.

(34ㄱ)의 후행 요소 ‘*통재’는 『표준』에 등재되지 않았으므로²¹⁾ 선행 요소인 (34ㄴ)을 품사 결정 요소로 보아야 한다.

2) 명사감탄사 통용 + 불분명한 단위 = 감탄사

번호	표제어	품사	선행 품사	후행 품사
1	걸음마-찍찍	감탄사	명사, 감탄사	?(부사 ‘찍찍1’ 아님)

- (35) ㄱ. 걸음마-찍찍(감) 어린아이에게 걸음을 익히게 할 때 발을
 떼어 놓으라는 뜻으로 재촉할 때 내는 소리.
 ㄴ. 걸음-마 [Ⅰ]「명사」 어린아이가 걸음을 익힐 때 발을 떼
 어 놓는 걸음걸이. [Ⅱ]「감탄사」 어린아이에게 걸음을 익

20) (17)과 (18)을 고려한다면, 후행 요소인 ‘나’를 인정하여 ‘나’ 표시를 해야 할 것이다.

21) 한자로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므로,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

痛 1. (몸이)아프다 2. 아파하다, 애석히 여기다 3. 번민하다(煩悶), 고민하다(苦悶)
 4. 슬퍼하다, 슬프다 5. 간절하다(懇切) 6. 사무치다 7. 괴롭히다 8. 원망하다(怨望
 →) 9. 높고 험하다 10. (힘을)다하다 11. 아픔, 고통(苦痛) 12. 원망(怨望), 원한(怨
 恨) 13. 몹시, 매우
 哉 1. 어조사(語助辭) 2. 비릇하다 3. 처음 4. 재난(災難) 5. 재앙(災殃)

히게 할 때 발을 떼어 놓으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

- ㄷ. 짹-짹1(부) 「1」 줄이나 획을 함부로 세게 긋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직직1「1」’보다 센 느낌을 준다. 「2」 줄이나 천 따위를 세게 마구 찢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직직1「2」’보다 센 느낌을 준다. 「3」 신 따위를 끌며 걷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직직1「3」’보다 센 느낌을 준다.

(35ㄱ)은 (35ㄴ)과 (35ㄷ)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의미로 보면 (35ㄴ)의 의미가 주를 이루고, (35ㄷ)은 이와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선행 요소가 품사 결정 요소라 할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복합어에 대한 조어법 연구에서 감탄사는 논외로 처리해 왔다. 즉, 체언이나 용언 등이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주된 용례로 제시되었을 뿐, 감탄사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감탄사는 그 분류와 화용론적 의미 기능 등에 국한하여 연구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 『표준』에 등재된 복합어 감탄사를 대상으로 하여 그 내부 구조에 바탕을 두고 결합 양상과 품사 결정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은 그 자체로 의의를 띤다 하겠다.

이제 그 주된 내용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맺음말에 갈음하려 한다. 먼저 복합어 감탄사의 유형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상위 부류	하위 부류	조어 양상	결과 품사
순수 감탄사가 결합된 유형	선·후행 요소가 모두 감탄사인 유형	감탄사+감탄사	감탄사
		감탄사+감탄사	부사감탄사 통용
	선행 요소가 감탄사인	감탄사+명사·부사·감탄사	감탄사

	유형	통용	
		감탄사 + 대명사감탄사	감탄사
		통용	
품사 통용의 감탄사가 포함된 유형	선행 요소가 품사 통용의 감탄사인 유형	감탄사 + 조사	감탄사
		명사부사감탄사 통용 + 명사	명사부사감탄 사 통용
	후행 요소가 품사 통용의 감탄사인 유형	관형사감탄사 통용 + 의존 명사	명사감탄사 통용
		관형사 + 명사감탄사 통용	감탄사
		대명사 + 명사부사감탄사 통용	부사감탄사 통용
		감탄사명사 통용 + 감탄사명사 통용	감탄사
문법 범주가 불분명한 구성 요소가 포함된 유형	선행 요소가 모두 품사 통용의 감탄사인 유형	부사감탄사 통용 + 부사감탄사 통용	
		선행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불분명한 구성 요소인 유형	불분명한 단위 + 감탄사
	후행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불분명한 구성 요소인 유형	감탄사 + 불분명한 단위	감탄사
		명사감탄사 통용 + 불분명한 단위	감탄사

다음으로 의미를 고려한 복합어 감탄사의 품사 결정 요소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모두 품사 결정 요소인 것(17개)

그래-그래, 만-만세, 아이고-아이고, 어머-머, 애고-애고, 예구-예구, 와-와, 우아-우아, 우어-우어, 우여-우여, 워-워, 쫓-쫓, 험-험, 호-호3, 후여-후여, 흙-흙2, 흥-흥2

2) 선행 요소가 품사 결정 요소인 것(21개)

가설랑-은, 걸음마-찍찍, 아이고-나, 아이고-머니, 아이고머니-나, 아
이-참, 애고머니-나, 어기야-디야, 어이구-머니, 어이구머니-나, 열씨구

나-절씨구나, 얼씨구-절씨구, 예구머니-나, 예그-나, 예꾸-나, 영치기-영차, 오호-통재(嗚呼痛哉), 이러-찌찌, 오호-애재(嗚呼哀哉), 저-거시기, 참-말

3) 후행 요소가 품사 결정 요소인 것(9개)

거-참, 그거-참, 그것-참, 새-아가, 아나-나비야, 아니-참, 어화-둥둥, 어허-둥둥, 얼싸-둥둥

4) 품사 결정 요소가 모호한 것(7개)

개치네-췌, 까짓-것, 에이-췌, 따로따로-따따로, 췌-췌, 아-아¹, 어-어

향후 ‘감탄사가 구성 요소가 아닌 복합어 감탄사’, ‘판단 곤란한 복합어 감탄사’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복합어 감탄사를 구성하는 문법 단위의 특성과 범위, 복합어를 구성하는 문법 단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의 결과가 한국어 복합어에 대한 조어법적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고영근(2015), “한자어 형성에 있어서의 구성소와 형성소”, 『한글』 308, 한글학회, 5-30.
- 교육과학기술부(2009), 「문법」, (주)두산, 90-111, 148-159.
- 교육과학기술부(2010), 「교사용 지도서 문법」, (주)두산, 110-149, 123-147, 187-196.
- 국립국어원(2000), “표준 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I”, 국립국어원, 8-72, 124-131, 140-154, 360-382.
- 김문기(2011), “품사 통용 감탄사의 처리 방안 연구”, 『우리말연구』 28, 우리말학회, 129-152.
- 김문기(2017), “뜻풀이로 본 『표준국어대사전』의 감탄사 유형 연구”, 『우리말연구』 50, 우리말학회, 5-30.
- 김양진·이현희(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형태 분석 정보”, 『민족문화연구』 5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55-118.
- 김영일(2015), “語根, 語幹, 語基 概念의 再檢討”, 『어문연구』 4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43-284.
- 김일병(2000), 「국어 합성어 연구」, 역락, 29-214.
- 김일환(2001), “어근적 단어의 형태·통사론”, 『한국어학』 11, 한국어학회, 213-226.
- 나찬연(2016), 「현대 국어 문법의 이해」(4판), 월인, 229-297.
- 노명희(2009), “語根 概念의 再檢討”, 『어문연구』 37-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9-84.
- 두청(2016), “한국어 감탄사의 형태·통사적 특성 연구”, 강원대 석사논문.
- 박홍수·김영희(2010), “준접사의 조어 특성에 관하여”, 『언어와 언어학』 48, 한국외대 언어연구소, 27-45.
- 서태룡(1999), “감탄사의 담화 기능과 범주”, 『동악어문논집』 35, 동악어문학회, 21-49.
- 신지연(2001), “감탄사의 의미 구조”, 『한국어 의미학』 8, 한국어 의미학회, 241-258.
- 양양(2011), “한국어 감탄사의 문법적 특성”, 강원대 석사논문.
- 이선영(2006), 「국어 어간복합어 연구」, 태학사.
-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 이승녕(1933), “語幹과 語根에 對하여”, 『조선어문』 6, 조선어학회, 37-39.
- 이영제(2014), “명사류의 명사성 판단 기준과 어근적 단어”, 『국어학』 72, 국어학회, 289-321.
- 이재인(2001), “국어 형태론에서 ‘어근’ 개념”, 『배달말』 28-1, 배달말학회, 93-112.
- 이호승(2003), “통사적 어근의 성격과 범위”, 『국어교육』 112, 한국어교육학회,

373-397.

전영옥(2002), “한국어 담화 표지의 특징 연구”, 『화법연구』 4, 한국화법학회, 113-141.

전영옥(2009),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감탄사 연구”, 『텍스트언어학』 2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45-271.

정한데로(2014), “단어 형성과 의미 합성성-통합관계와 계열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44, 한국어의미학회, 263-289.

최규수(2007), “복합어의 어기와 조어법 체계에 대하여”, 『한글』 277, 한글학회, 133-158.

최형용(2009), “‘형성소’와 ‘어근’ 개념의 재고를 통한 ‘어근 분리 현상’의 해석”, 『국어학』 56, 국어학회, 33-60.

최형용(2016), 『한국어 형태론』, 역락, 17-111, 283-292, 313-334, 415-475.

최형용(2017), “단어 형성과 형태소”, 『국어학』 81, 국어학회, 351-391.

최형용(2018), 『한국어 의미 관계 형태론』, 역락, 85-290.

최호철(2000), “현대 국어 감탄사의 분절 구조 연구”, 『한국어내용론』 7, 한국어내용학회, 361-405.

허재영(2001), “감탄사 발달사”, 『한국어 의미학』 9, 한국어 의미학회, 67-95.

홍종선(2003), “국어 사전 편찬, 그 성과와 과제(3): 올림말(2)”, 『어문논집』 48, 민족어문학회, 5-38.

황화상(2014), “형태 단위와 그 범주 설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69, 국어국문학학회, 85-110.

황화상(2016), “어근 분리의 공시론과 통시론”, 『국어학』 77, 국어학회, 65-100.

김문기(Kim, Mungi)

[4722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 11번길 36(양정동)

전자우편: kimmg50589@hanmail.net

원고접수일 : 2019년 4월 10일

원고수정일 : 2019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 : 2019년 5월 24일

Abstract

A Study on the Types of Semantic Combination and Determinants of Part of Speech in the Korean Compound Exclamations

Kim, Mungi

(Dong-A University)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types of the Korean compound word exclamations based on the internal structure, and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whole composition of them as exclamation. For these purposes, I consider all of the compound word excerpts listed in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as object in this paper. Especially, I focused on the word-type compound exclamations that composed of exclamations.

First, there were two types in ‘combined type of exclamation not used as another part of speech’; the type in which the leading and trailing elements are both exclamations, and the type in which the preceding element is an exclamation.

Second, there were three types in ‘type with exclamation used for other parts of speech’; the type that the preceding element is an exclamation used as another part of speech, the type that the both preceding element and trailing element are an exclamation used as another part of speech, and the type that the trailing element is an exclamation used as another part of speech.

Third, there were two types in ‘type that contains components whose grammatical categories are unclear’; the type of the preceding element whose grammatical category is unclear, and the type of the trailing element whose grammatical category is unclear.

I examined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se types of the compound exclamations by focusing on the meaning of the components. And as a result, I have examined the parts of these compound exclamations.

Keywords: compound exclamation, internal structure, type of semantic combination, decision of part of speech, meaning, component, word-type compound exclamation, sentence-type compound exclamation, word formation, 『Standard Korean Dictionary』

핵심어: 복합어 감탄사, 내부 구조, 결합 유형, 품사 결정, 의미, 구성 요소, 단어 형 복합어 감탄사, 문장형 복합어 감탄사, 조어법, 『표준국어대사전』